

2015 KBO리그 시범경기가 7일 개막한다. 10개 구단이 정규시즌을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구단들은 저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답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동아DB

삼성 5선발 숙제…넥센은 '강정호 후임찾기'

시범경기 10개 구단 체크포인트

NC 용병투수 첫 2명…LG 선발 부상공백
SK, 6선발 카드찾기…두산 마무리 숙제
롯데 용병 검증…한화 이용규 회복 관건
KIA 마운드 정비…첫 1군 kt 경기력은?

정규시즌에서의 실수는 오점이지만 시범경기에서의 실수는 보약이다. 시범경기는 10개 구단이 무언가를 시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기다. 10개 구단은 저마다 처한 사정에 따라 시범경기에서 집중 점검할 혈(穴)을 찾을 것이다. 단순 승패를 떠나 팀들이 어떻게 나름의 답을 찾는지, 그 몸부림을 살피는 것이 시범경기를 관전하는 묘미다.

●삼성, 5선발만 정하면

천석꾼이 천 가지 걱정이 있듯 만석꾼은 만 가지 걱정이 있는 법이다. 우승 전력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는 삼성도 5선발은 아직 구하지 못했다. 류중일 감독이 생각하는 이상적 그림은 정인욱 선발, 차우찬 불펜 카드인데 정인욱의 구위가 올라오지 못해 차우찬이 선발로 가야할 상황이다. 야수 중에선 떠오르는 별 구자욱이 즉시전력감인지를 가린다.

●넥센, 강정호의 후임은?

피츠버그로 떠난 유격수 강정호를 메우는 것이 발등의 불이다. 공격형 윤석민, 수비형 김하성이 준비돼 있는데 시범경기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불펜에서 선발로 보직 이동하는 한현희의 경쟁력도 챙겨봐야 된다.

●NC, 선발과 불펜에 떨어진 숙제

올해부터 용병투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태드 웨버가 빠진 만큼의 이닝이 고스란히 NC 선발진의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NC 불펜의 유일한 사이드암이었던 원종현이 대장암과 투병하고 있어 불펜도 시험할 일이 많다.

●LG, 두 명의 기둥선발이 돌아올 때까지

선수층이 두꺼운 LG도 선발만 생각하면 시즌 초반부터 고비다. 주축 선발 류제국과 우규민이 동시에 재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시범경기를 통해 임지섭이 선발로 정착해야 된다. 또 한 명의 선발을 낙점하는 과정도 남겨져 있다.

●SK, 디테일만 남았다

사실상 전력구성이 끝난 SK는 있는 자원들 중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줄 것인지를 시범경기에서 정한다. 박계현 나주환 이대수가 경합하는 2루수, 백인식의 5선발 적응 여부, 윤길현 마무리 투입 카드 등이 실험된다. SK 김용희 감독은 "시범경기를 보고 6선발 로테이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김태형 감독 취임 이래 마무리는 두산의 오랜 숙제였다. 시범경기에서도 이 고민은 이어진다. 두산은 윤명준을 마무리 제1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위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아서 고민이 깊다. 마무리가 흔들리며 아직도 불펜 보직이 불확실하다. 시범경기를 통해 경쟁력을 가늠할 상황이다.

●롯데, 용병부터 검증하자

롯데는 장고 끝에 용병 3인 전원을 새로 뽑았다. 외야수 아두치는 시범경기를 통해서 롯데의 숙원인 발 빠른 리드오프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다. 선발은 좌완 장원준이 두산으로 떠나 헐거워진 것만큼 브룩스 레일리와 조쉬 린드블럼, 두 투수가 보여줄 구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아울러 긴 재활에서 돌아올 포크볼러 조정훈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대된다.

●KIA, 리빌딩의 시작점은 어디부터?

오키나와 평가전에서 9전 전패를 당한 KIA는 갈 길이 구만리다. 4~5선발, 불펜 조각, 내야 키스톤, 외야부터 포수, 용병투수까지 안 만질 데가 없다. 특히나 마운드 정비가 시급하다. 선수층이 워낙 얇아 최희섭, 김주찬, 이범호 등 주력 타자들의 부상 방지도 필수적. 결국 KIA 김기태 감독은 시범경기부터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뚝심 있게 전 포지션에 걸쳐 선수들을 테스트할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시범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팀 분위기 유지도 KIA에 요구된다.

●한화, 이용규는 수비를 할 수 있을까?

한화 김성근 감독이 시범경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체크포인트가 요동친다. 시범경기부터 패배의식을 털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 쏟을지, 아니면 다른 팀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승패에 집착하지 않을지에 한화의 노선이 결판난다. 다만 분명히 따져볼 포인트는 이용규의 몸상태다. 시범경기부터 이용규가 외야수로 출전할 수 있다면 한화의 가용 폭은 넓어진다. 그러나 이용규가 지난해처럼 지명타자밖에 나오지 못하면 김 감독의 머릿속도 복잡해진다. 2군에서 훈련한 한화의 문제적 용병타자 나이저 모건이 전력에 가세하는 시점도 따져야 한다.

●kt, 1군에서 버틸 능력치를 갖췄는가?

kt는 시범경기를 통해 베일을 벗는다. kt가 1군에서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을 할 수 있는 지부터 살펴야 한다. 아무래도 kt로 온 이적생인 이대형, 장성호, 김상현, 박경수, 박기혁, 김사율 등이 체크포인트다. 이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팀에 활기가 돌고, kt 조범현 감독의 전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삼성·롯데·kt 주말경기도 무료입장

■ KBO 시범경기 알고 보자

LG·넥센·한화·NC 등 주말경기 유료
스피드업 적용…항의는 감독만 가능

2015년 KBO시범경기가 예년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일부 주말경기에 한해서 유료화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KBO는 시범경기 유료화 여부를 구단별 자율에 맡겼는데 LG, 넥센, 한화, NC 등이 주말 2연전에 한해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넥센은 좌석등급에 관계없이 5000원, NC는 3000원을 받기로 했다. 한화는 정규시즌 티켓가격의 30%를 받기로 했다. LG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한화와 비슷한 요금기준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KIA와 SK도 유료화에 긍정적이다. KIA는 전석 동일하게 2000원을 받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 SK는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와 삼성, kt는 주말에도 무료로 야구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롯데는 부산 민심 수습 차원에서, 삼성은 대구구장을 보수하며 발생한 팬들의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무료를 유지한다. 신생팀 kt는 유료화를 한때 검토했으나 되도록 많은 수원팬들을 시범경기부터 불러 모으기 위해 무료로 선회했다. 두산은 주말 홈경기가 없어 고민의 여지가 없었다.

이밖에 이번 시범경기부터 바뀌는 룰이 새롭게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스피드 업 규정의 변화로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두 발 모두 타석을 벗어나면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주는 규정이 도입된다. 김풍기 심판팀장은 "이미 오키나와, 미야자키 평가전에서부터 새 규정을 적용했다. 실제 두 발을 모두 타석에서 빼 스트라이크 벌칙을 당한 타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항의는 오직 감독만 가능하다. 수석코치가 으레 하듯 감독과 동행하면 퇴장조치를 당한다. 정규시즌의 숨어있는 변수인 스트라이크 존 확대도 시범경기부터 본격화된다. 높은 공 반개 정도 존이 넓어진 것인데 투수와 타자는 물론, 심판부터 시범경기를 통해서 적응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김영준 기자

● 2015 KBO 시범경기 일정

※ 노랑 바탕은 유료 입장경기, *표시는 유료화 여부 검토 중

날짜(요일)	대진(구장)				
7 (토)	kt-넥(목동)	L-한(대전)	두-삼(포항)	S-롯(사직)	K-N(마산)
8 (일)	kt-넥(목동)	L-한(대전)	두-삼(포항)	S-롯(사직)	K-N(마산)
10 (화)	두-넥(목동)	S-한(대전)	K-삼(포항)	L-롯(사직)	kt-N(마산)
11 (수)	두-넥(목동)	S-한(대전)	K-삼(포항)	L-롯(사직)	kt-N(마산)
12 (목)	K-넥(목동)	두-한(대전)	L-삼(포항)	kt-롯(사직)	S-N(마산)
13 (금)	K-넥(목동)	두-한(대전)	L-삼(포항)	kt-롯(사직)	S-N(마산)
14 (토)	롯-넥(목동)	두-kt(수원)	S-삼(포항)	*L-K(광주)	한-N(마산)
15 (일)	롯-넥(목동)	두-kt(수원)	S-삼(포항)	*L-K(광주)	한-N(마산)
17 (화)	N-두(잠실)	L-kt(수원)	넥-한(대전)	S-K(광주)	삼-롯(사직)
18 (수)	N-두(잠실)	L-kt(수원)	넥-한(대전)	S-K(광주)	삼-롯(사직)
19 (목)	K-두(잠실)	L-넥(목동)	S-kt(수원)	롯-한(대전)	삼-N(마산)
20 (금)	K-두(잠실)	L-넥(목동)	S-kt(수원)	롯-한(대전)	삼-N(마산)
21 (토)	두-L(잠실)	*넥-S(문학)	K-kt(수원)	한-삼(대구)	N-롯(사직)
22 (일)	두-L(잠실)	*넥-S(문학)	K-kt(수원)	한-삼(대구)	N-롯(사직)

반가운 얼굴들 시범경기 총출동

정인욱·정우람 복귀…구자욱·홍건희 등 새얼굴도 주목


정인욱


정우람

시범경기는 '새 얼굴'을 보는 재미가 있다. FA(프리에이전트)로 영입한 선수가 새 유니폼을 입고 처음 뛰는 모습은 물론, 군복무를 마친 주축 선수가 다시 익숙한 유니폼을 입고 돌아온 장면을 보는 것도 반갑다. 모처럼 1군에서 뛸 희망에 부풀어 있는 군제대 선수들이 2년간의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경연장인 셈이다.

삼성은 투수 정인욱과 야수 구자욱의 복귀가 반갑다. 정인욱은 FA 배영수와 권혁이 빠져나간 마운드의 공백을 메워줄 후보. 지난해 상무에서 남부리그 타격 1위에 올랐던 구자욱은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벌써 올해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넥센은 포수 유선정이 공익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경쟁에 뛰어들었고, LG는 포수 유강남과 나성용이 은퇴한 현재윤의 빈 자리를 메울지 눈길을 모은다. SK는 2011년 홀드왕이자 전임 마무리투수 정우람이 돌아와 든든하기만 하다. 두산은 투수 이원재, 조승수, 진야곱과 야수 유민상, 정진호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한화 마운드의 주축이었던 양훈과 장민재, KIA 유망주 투수 홍건희도 팀이 기다렸던 선수들이다.

물론 선수들만 선을 보이는 건 아니다. 올해는 지난 시즌 4강에 오르지 못한 팀들의 사령탑이 모두 바뀌었다. SK 김용희 감독, 두산 김태형 감독, 롯데 이종운 감독, KIA 김기태 감독, 한화 김성근 감독까지 총 다섯 명의 새 감독이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근 감독과 김용희 감독, 김기태 감독은 놓았던 지휘봉을 다시 잡고 현장에 돌아온 케이스. 특히 김성근 감독은 겨우내 강도 높은 지옥훈련으로 화제를 모았다.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한화에 어떤 투지를 불어 넣었을지, 그리고 과연 김 감독 특유의 훈련법이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지 시범경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김용희 감독이 구축한 시스템 야구와 김기태 감독의 형님 리더십도 시범경기에서 시동을 건다. 두산 김태형 감독과 롯데 이종운 감독은 처음 프로야구 지휘봉을 잡는 사령탑이다. 선수 시절부터 남다른 카리스마와 통솔력을 발휘했던 김태형 감독과 안팎으로 어수선했던 롯데에 연착륙한 이 감독이 어떤 야구를 선보일지도 관심을 모은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프로야구 첫 스위치투수 도전에 '최우석법' 탄생

동일타자 상대 손 변경불가 등 규정 신설



한국프로야구 최초의 스위치투수(Switch Pitcher)에 도전하는 한화 최우석(22·사진)으로 인해 시범경기를 앞두고 야구규칙도 새롭게 제정됐다. 스위치타자와의 대결에서 투수의 투구하는 손과 타자의 타석 결정을 놓고 자칫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최우석법'을 만든 것이다.

KBO는 5일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과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정규의 투구'를 규정한 공식 야구규칙 8.01에 (f)항을 신설해 스위치투수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투수는 투수판을 밟을 때 투구할 손의 반대쪽 손에 글러브를 착용함으로써 주심, 타자, 주자에게 어느 손으로 투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투수는 동일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타자 아웃, 타자가 주자가 될 경우, 공수교대가 될 경우, 대타가 나올 경우, 투수가 부상당할 경우에는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있다. 투수가 부상으로 동일타자의 타격 중에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그 투수는 이후 경기에서 물러날 때까지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없다. 투수가 이닝 도중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경우 투수는 연습투구를 할 수 없으며, 글러브를 교체할 수 없다. 단, 양손글러브는 허용한다.

최우석은 원래 왼손잡이지만 이수중 3학년 때 왼 어깨를 다쳐 장충고 진학 후 오른손으로만 던졌다. 2012년 한화에 입단한 그는 그해 9월 임의탈퇴로 팀을 떠났다가 지난해 1월 복귀한 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본격적으로 스위치투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오른손으로 시속 145km, 왼손으로 시속 135km 정도를 던질 수 있다. 규칙위원회는 이밖에도 일부 규칙을 개정했다.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등판 후 첫 타자가 아웃되거나, 출루하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엔 우투수는 우투수로, 좌투수는 좌투수로, 사이드암 및 언더핸드는 역시 같은 사이드암 및 언더핸드로 교체하도록 했다. 타자일 경우 우타자는 우타자로, 좌타자는 좌타자로 바꿔야한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